

교육·봉사·국제교류 화두로

## 신개념 청년회 뜬다

능인선원 YBA 창립 ... '글로벌 호프' 등 해외활동 주력

기초교리과정 이수·템플스테이 의무

청년 불교 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된다.

서울 강남 능인선원(원장 지광)이 차세대 한국불교를 이끌 '젊은 부다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옮겨진 화두는 '청년교육'과 '국제교류'. 청년불교 층을 두텁게 하고,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다. 능인선원은 4월 23일 선원 대법당에서 YBA(Young Buddha Association) 창립총회를 갖고 설립 준비경과 보고 및 향후 활동 사업을 확정하는 등 봉사활동과 국제교류 활동가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능인선원의 이날 YBA 결성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에서도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YBA 고문을 맡은 조계종립 방장 보성 스

님을 비롯해 후원 분야에 장경작 롯데호텔 대표이사, 추병직 건교부 장관, 교육 분야에 양태식 서울교대 교수, 이종원 중앙대 교수, 자원봉사 분야에 중앙승가대 교수 승원 스님 등 10명의 이사진이 포진해있다.

4월 8일 창립공청회를 거쳐 활동 중심축을 '국제교류'와 '청년불자 활동지원'에 맞춘 YBA는 우선 조직을 'YBA 청년단'과 청년교육을 담당할 법사단, 국제교류를 맡을 'Global Hope' 등으로 구성했다.

YBA는 무엇보다도 'Global Hope' 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05년부터 해온 초청 문화행사 '한국-티베트 청년 한마당' 등의 국내거주 티베트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동남아 이주노동자로 확대·실시한다. 또 4월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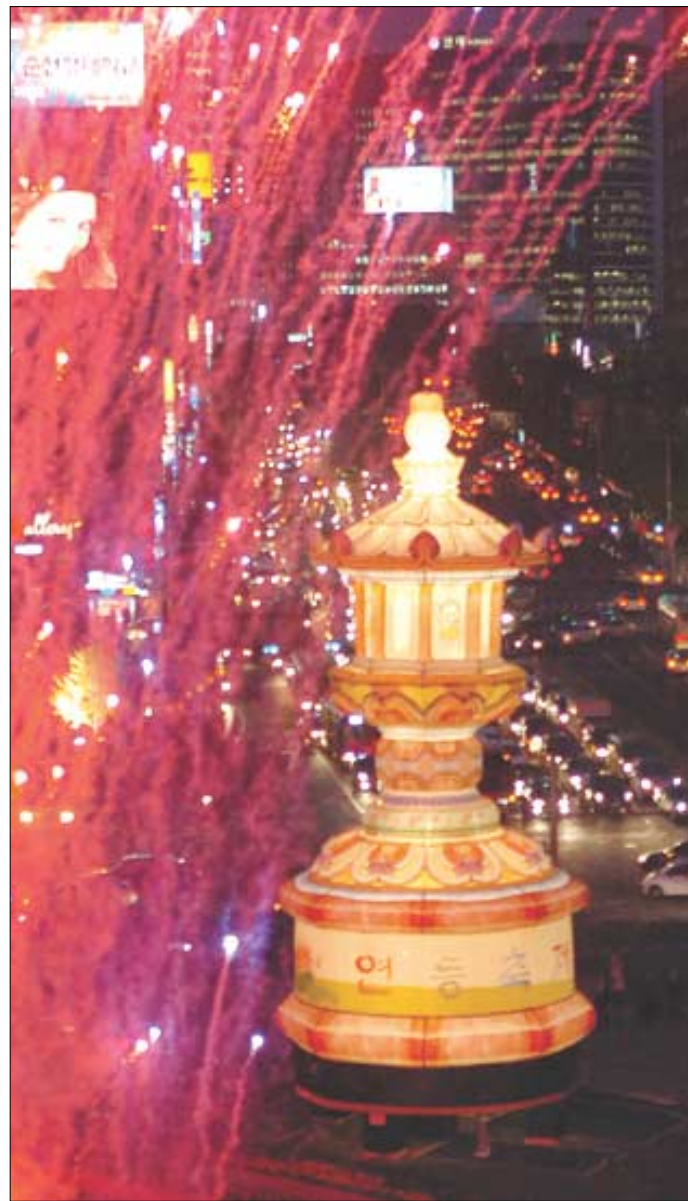
선재마을의료회와 연계해 월 1회 능인복지관 건강관리실에서 '무료 진료봉사'를 한다.

파키스탄 지진피해 구호활동의 후속사업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현지에서 구호단 활동을 벌인 YBA는 올 2월 파키스탄 국가인간개발 위원회(N.C.H.D)와 체결한 'Global Hope 학교' 2곳 설립·운영과 여름 캠프 사업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YBA는 지진 피해 지역 카와이 글로버 학교에 1만3천 달러를 지원, 150여명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1곳의 설립을 끝냈다.

YBA는 이와 함께 출범 모태였던 능인선원 청년부의 신생활동도 강화한다. 회원은 능인청년불교대학에서 불교기초교리를 이수하고, 국경사 템플스테이를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또 군인영자 신행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해 지속적인 신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코드를 잘 맞춰 영어 경전 강독반, 밸리댄스 등의 동아리 활성화에도 사업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광 스님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청년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해법을 불교에서 찾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YBA 결성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청년불교 실천가를 키우고 국제교류사업을 전문화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san@buddhapia.com



### 진리와 화합... 서울 시청앞 봉축등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4월 18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진리와 화합의 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우리도 부처님같이-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봉축 연등축제의 첫 번째 공식행사인 이날 점등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

롯한 불자 및 시민 2000여명이 동참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잠뜻을 되새겼다. 올해 봉축 상징물인 "진리와 화합의 등"은 폭 8m, 높이 18m 규모로, 사람의 법당 앞에서 아들을 밝히려 진리를 찾는 이들을 안내하고 있는 '석등' 모양을 소재로 제작됐다.

글=조용수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 '군불교협' 설립 추진

조·천·진 종단 실무협의중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범종단 기구인 (가칭)군불교협의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민)는 4월 19일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가칭)군불교 협의회를 구성해 군포교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칭)군불교협의회는 조계종과 종립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천태종과 진각종이 군승 파견 등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범종단적 기구로 현재 3개 종단 실무자들이 협의 구성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는 이미 군복을 파송하고 있는 12개 교단이 군선교 연합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 지관 스님 정 추기경 만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7일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서울 성북동 성가정입양원을 찾아 위문한다. 지관 스님은 이날 정진석 추기경과 처음 만나 환담을 나눈다. 또 추기경 서임을 축하하고 두 종교 간의 화합을 과시할 예정이다.

조용수 기자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일 문수사 주지 혜정 스님



시방세계 9일 장애인불자들 금강산행

율원 활성화 대야 한다 4일 영화 '나그네와 미술사' 28일



도반의 향기 17일 결혼 60주년 주영은 장기옥 부부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품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크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복장 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 전문분야 포교인력 양성한다

조계종 자격자 선발·관리 규정·입법예고

조계종이 특정분야에서 전문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자들을 핵심 포교인력으로 양성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조계종은 4월 18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종단자격자선발및관리예

관규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은 현재 종단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가자 대상 자격제도인 일반포교사와 국제포교사 제도 외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특정 분야에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

는 사람들을 종단 핵심 포교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자격범위는 어린이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심리사, 선지도사 등으로 우선 설정한다. 또 각 자격직을 관리하는 단계를 뒤 어린이지도사는 대한불교교사대학이, 청소년지도사는 파라미터청소년협회가, 상담심리사는 불교상담개발원이, 선지도사는 동국대학교 선학과가 이를 담당한다.

동국대 선학과가 마련 중인 선지

도사의 경우 3급(학사학위 취득자), 2급(석사학위 취득자), 1급(박사학위 취득자)으로 구분된다.

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부 및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안거수행을 거쳐야 한다. 3급은 간화선 수행 2만거와 위빠사나 수행 3개월 이상, 2급과 1급은 별도의 간화선 수행 각 1만거와 년 1회 이상(최소 1주일)의 위빠사나(여타 명상수행도 가능) 수행 과정이 있어야 한다.

우 방장스님이나 조실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이거나 방장·조실 스님을 법주로 모신 경우에 한한다.

선지도사를 비롯해 자격직 선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단 신도등록 및 5개 수지자에 한해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전문성이 인정돼 관리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연수)과정 등을 졸업(이수한) 자 △포교원장이 해당분야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등의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남동우 기자 dnam@buddhapia.com

## 2006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역사·문화체험

본사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제 3회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미국 현지를 체험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간: 7월 27일~8월 17일(21박 22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3월 25일~5월 15일
- 장소: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주최: 현대불교신문
- 협찬: (재)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봐야할랜드 화산섬 탐방.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훌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땅서런 사랑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관람
  -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문의 / 현대불교신문 사업2팀 (02)2004-8295

# 성명서

불보존할 영축총림 통도사를 아끼는 사부대중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재직중 일동은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근자에 통도사 주변에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련의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청정한 도량에서 율곡은 신심으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총림의 다수 대중은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산중의 반목과 질시를 종식시키고 나아가 실추 되려는 영축총림 통도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초우 방장 후보스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방장후보사퇴 의사를 밝히시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시시오. 우리가 산중총회에서 다수의 결의로 방장후보로 추대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종단 총법상의 결격사유가 우리 대중의 우기는 것만으로 탈락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깨끗하게 사퇴하는 길이 본인의 자존심을 살리고 본분납자다운 모습이며 그나마 실추되는 본인과 영축총림의 명예를 회복 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2.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허울뿐인 임의 단체는 즉각 자진 해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단이나 교계신문, 말사(암) 등에 유인물을 배포하여 파생시킨 초법적인 결의사항(주지불신임, 방장사

불기 2550년 4월 17일

##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 지 직무대행	이산 현문	총무국장	문 성	포교국장	매 물
울 원 전 계 사	해남 중산	기획국장	무 영	사회국장	명 현
보광선원유	나 천진 보탑	교무국장	보 화	호법국장	원 진
강 원 강 주	혜엄 우진	재무국장	지 수	박물관장	범 하